

2022 공인노무사 합격 수기(프리패스 환급)

합격수기 제목:

힘들고 힘든 그러나 가슴 벅찬...나의 길 공인노무사

수험기간:

저는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최종합격하였습니다(현동차). 수험기간은 2020. 9월경부터 2022. 8월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직장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개별 노동법, 집단 노사관계 등에서 노무관리자가 기업운영에 매우 밀접하게 또는 기업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노무관리자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작게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행복과, 크게는 기업 경영합리화에 깊이 관여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히 노무사 시험에도 도전하는 계기가 마련하였고 늦은 나이지만 전업으로 공부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 두고 2년간 치열한 삶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단과 동영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그냥 아무런 필기도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편안히 카페 같은 곳에서 차 마시면서 인강을 듣기, 허락되는 한 반복 청취하기였습니다. 2020. 12월부터 2021. 2월까지의 영어 TOEIC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Listening 점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700점을 넘을 수 없었으므로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다가 지겨우면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꽤 효과가 좋았습니다. 겨우겨우 700점을 넘겼습니다. 2021. 3월부터 1차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 제30회 1차시험은 민법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별충하겠다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2차시험에 집중하다보니 시간 전략에서 뒷심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냉철한 원인분석을 거친 후 2021년 제30회 2차 시험 후 공개된 문제를 보고 실전과 같이 시간을 재어서 2차 답안을 저 혼자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 모범답안을 보며 나름 자가 채점을 해 보았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내용이었고 공부한 기간에 비추어 이 정도면 내년(2022년) 동차 합격을 목표로 준비해도 충분히 해 낼 수 있겠다는 나름 근자감(?)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었고 턱 없이 부족한 실력이었는데 그 때 그런 생각이 일종의 자기 암시(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1. 12

월까지 2차 전과목을 5회독 하였고 2021년에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인강 위주로 반복 청취하였습니다. 2022. 1월부터 1차 시험때까지 매일 3시간씩 1차 과목 공부를 병행하였고 2022년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2차 시험 때까지 기본서 5회독, 답안 작성 연습 10회 정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수강 강의 및 교수님 후기, 시간 관리 방법 등):

노동법 65.59, 인사노무 59.06, 행정쟁송 58.17, 민사소송법 62.49 평균 61.8입니다.

인사노무관리 최종락 샘의 경우, 동 과목을 물 흐르듯 매끄럽게 강의하시고 교재 또한 2차 답안에 쓰기 좋게 정리해 주셔서 공부할 때 매우 효율적이었고 실전 답안 쓸 때도 당해 내용이 금방 떠오를 정도로 핵심을 잘 잡아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법학 전공이라 경영학 과목에 상당히 헤매고 있었는데 최종락 샘의 강의를 들으며 인사관리의 '맥'을 잡을 수 있었고 머리속에만 있는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답안에 현출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점을 알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딱딱하게만 진행될 수 있는 강의를 부드럽게 이어감으로써 수험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스펀지 같이 흡수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김광수 샘의 경우, 강의 자체가 legal mind 라는 과녁에 정확히 꽂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던 내용이 강의가 진행될수록 단단한 화강암이 무른 점토로 변하여 자유자재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듯 또는 원하는 형태로 레고 블럭을 쌓듯 무궁한 변용의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셔서 처음엔 울면서 강의를 듣다가 나중엔 웃으면서 강의를 마치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시간은 1일 16시간, 1주 1과목을 기본 원칙으로 진행했고 2차 시험 4주 전부터 1일 2과목, 2차 시험 2주 전부터 1일 4과목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단권화에 매우 정성을 쏟았고 시험 3전 전까지도 단권화에 매달렸습니다. 단권화 관련하여, 강사 핵심정리 교재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취약했던 부분, 잘 잊는 내용, 고득점 할 만한 포인트 등을 형광펜, 포스트잇, 메모지 책 사이에 끼워 붙이기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단권화 하였고 나중엔 그 책 하나만 보면 될 정도로 했습니다. 이게 되나 싶겠지만, 단권화를 마치고 시험 3주전부터는 기계처럼 암기만 죽어라 하고 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다. 사실 '3주'라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 같고 그동안 외워서 2차 시험장에서 제대로 현출될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게 됩니다! 단권화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계속 암기는 진행되어가는 것이고 그 3, 4주 동안 키

워드 중심으로 반복암기해도 2차 답안에 득점 궤도에 오를 정도로 내용을 채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지 말고 무엇이 핵심인지 강사 강의를 들으며 그때 그때 체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시간이 반복될수록 공부량이 줄어들고 부담감, 불안감도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단기사이트, 서비스, 콘텐츠 활용 팁:

'노단기'의 각 강사님들이 제공하는 각종 암기 노하우, 두문자, 연상기법 등을 모두 동원하여 나의 공부와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공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은 옆집 강아지까지 등장시키며 암기 무대를 장식했고 심지어 저만이 기억하는 욕설을 섞어가며 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있을 때는 입밖으로 내뱉으며 기를 쓰고 암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암기되는 내용은 넘어가고 정말 안 외워지는 내용은 따로 적어서 시험 직전에 체크하고 들어가겠다 하여 정리해 둔 것도 있습니다. 취약한 과목은 전화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공부방법,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제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강사님들 또는 노단기 학원이 제공하는 판례암기장, 모양자 등 부재료 등도 암기, 답안 작성 등에서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은 '나' 주변의 모든 가용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지동설이 아닌 나동설('나' 중심으로 돈다..) 신봉자로 좀 심하게 말하면 또라이 아냐?라는 말을 정도로 시험에 미쳐야 이 괴로운 수험생활을 조금이라도 빨리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교이지만 종교가 있는 분들도 수험생활동안만은 각자의 신보다 노단기 학원 강사님들을 우위에 두고 그 분들 말씀을 성경, 불경, 코란처럼 삼고 신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강사님 말씀대로 수험생은 비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다, 오직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관련 논의에 비판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험생은 그저 taker로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꼭 무슨 사이비 광신도 같이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노단기 학원 강사님들이 저의 신이고 태초에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라고 비쳐지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또라이 정신으로 공부해야 가까스로라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공인노무사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경쟁이 살인적이며 신림동 고시촌에서 소림사 절대고수보다 몇 백배 더 깊은 내공을 가진 무림고수들이 즐비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지금 한가한 마음가짐으로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공인노무사시험에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노단기 학원 강사님들의 말씀을,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분들의 정신을 복제인간 수준으로 따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수험생들에게]

명석을 알아주셨으니 주제 넘지만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합니다. 어렵고 괴롭고 고달프고 슬프고 지루하고....뭐, 하여튼 세상에 온갖 부정적이고 저주스런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그것이 바로 '시험'이란 놀일 겹니다. 사람을 참 피폐하게 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공인노무사시험은 더욱 그러한 듯합니다. 영어공인성적의 벽을 넘어야 하고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싶으면 무슨 황하 같은 2차 시험은 왜 그리도 넘기 힘든지... 그래서, 공인노무사시험을 준비할 때는 백만 개 핵폭탄 폭발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불합격자는 울면서 불평하지만 합격자는 울면서 공부합니다, 울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고 울면서 2차 답안을 끝까지 써내려 갑니다. 저는 2차 시험 마지막 과목인 민사소송법 답안에서 마지막 문제 '결론'부 4줄까지 쓴 직후 타종이 올리는 바람에 '제3문끝, 이하여백'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 감독관에게 그 8글자를 쓰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답안지를 빼앗긴 것을 두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울면서 땅을 쳤었고 꿈에서도 그것이 한이 되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제 아내가 저더러 '당신은 노무사시험에 합격 못하고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하소연하길 제발 노무사시험에서 합격하고 올테니 기다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할 것같다고, 그래서 노무사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눈에도 저의 간절함이 그렇게까지 비쳐졌나 봅니다. 사실 제 아내의 위말이 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

공부할 땐 교수님들 강의 자료, 강의 내용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깊은 고민과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셨을까 이제야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쇠는 혹독한 담금질을 거쳐야 명검으로 거듭날 수 있고 고려청자는 수천 도 불가마 속에서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검이든, 고려청자든 장인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한 법.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을 대할 때 그런 장인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시면 더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교수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호흡하며 험난한 수험생활을 지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공을 나의 가족들과 함께 노단기 학원 및 교수님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